

# 라오스 12월 활동보고

Viengsamai\_조다현

## 1. 외부 활동

### 1) 자전거타기 기부행사



PYC스태프들과 새벽아침부터 단체티를 맞춰 입고 자전거타기 기부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입고 있는 티셔츠는 이번 행사에서 파는 것으로, 티를 살 때 낸 돈은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기부했습니다. 긴 코스였지만 간만에 운동도 되었고 의미 있는 일이라 달리면서도 뿌듯했습니다. 등교 전에 행사에 참여하러 온 학생들이 많았는데, 중간에 마을 친구를 만나게 되어 함께 달릴 수 있어 좋았고 탁 트인 자연을 옆에 두르고 달리는 묘미도 맛봤습니다. 다만 먼 마을에 사는 다른 팀원과는 함께 참여하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 2) 라온아띠 중간평가



꽤 길다고 느껴졌던, 지나고 보니 짧지 않았나 싶은 중간평가 기간! 함께 준비한 PT를 통해 3개월간 우리가 해왔던 활동,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르게 느꼈던 감정, 공유하고 싶은 점 그리고 PYC에 바라는 점 등을 정리해 보고, 현지 스태프들과도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는 팀원이 부럽고 내가 맡았다면 어떻게 해낼 수 있었을까 괜한 걱정도 들었지만, 역시 내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잘 해내는 것이 소중한 일상에서 오는 행복이 아닐까요. 감사님과과의 토크는 지친 내 자신에게 힐링을, 서로의 마을을 돌아봤던 하루하루는 스몰 웨딩이나 옷감 짜기처럼 그 마을 고유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되었습니다.

## 2. 문화 체험

### 1) 루앙프라방 관광



3박 4일 일정으로 루앙프라방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푸시산 전망대에서 일몰도 보고, 폭포밑에서 쉬기도 하고 왓마이사원, 야시장 등 이곳 저곳을 둘러보며 그간 쌓였던 피로를 풀었습니다. 왕궁박물관과 민족 박물관 관람을 통해 라오스의 역사를 배워가는 것도 흡족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진짜 휴가다운 휴가였다는 점입니다. 왼쪽 사진은 팡시폭포 하류에서 여동생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번 기회로 동생과 더 친해지고 싶었지만 서로 잘 안 맞는데 굳이 휴가나와 감성소모하고 싶지 않아 적당히 선을 지키며 지냈습니다.

### 2) 몽족신년축제 참여



12월 17일, 현지친구 그리고 팀원들과 몽족신년축제 '너베자오'에 참여했습니다. 젊은 남녀가 옷을 갖춰 입고 서로 공을 주고 받으며 짝을 찾아가는 전통놀이를 했는데 특색 있고 재미있는 문화였습니다. 가족분께서 친절히 몽 전통 옷을 빌려주셔서 입고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예쁘긴 하나 입기도 어렵고 무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역시 꾸미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한국이나 라오스나 수고로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3) 새해맞이

마을 청년, 청소년들과 센터 앞에서 2018 카운트다운을 하고 함께 연등을 날리며 새해 소원을 빌었습니다. '지금 함께 있는 이들을 잊지 않게 해 달라고', '올해는 좀 더 나 다워지자고' 소원을 빌었는데 부디 이 소원부터 제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길 바래 봅니다.(하하)

그렇게 맞이한 새해 첫날은 동이 틀 때까지 마시는 술 때문에 음주로 끝나는가 싶었는데, 친한 마을 친구들과 팡은 산의 정상으로 오르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등산로의 경사가 너무 가팔라서 셀 수도 없이 미끄러졌지만 이 또한 라오스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듯 합니다.



### 3. Youth center 활동

#### 1) '카오다오' 준비



'카오다오'는 카운트다운을 발음하기 쉽게 라오어로 바꾼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 말은 '별들 안에서'란 뜻을 가지고 있어 새해를 맞이하는 단어로 쓰기에도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들뜨는데, 정작 집이나 센터, 길거리를 지나 다니며 연말임을 그리고 곧 새해임을 느끼기에는 뭔가 허전했습니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한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들 내심 기대하고 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과 뜻을 모아 25일 크리스마스에 센터를 청소하고 풍선과 같은 재료들로 센터를 꾸몄습니다. 센터를 꾸민 후에 평소보다 더 많은 마을 친구들이 센터에 찾아와 다 함께 2017 연말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

#### 2) 크무족신년축제 준비 & 생일축하



여러 민족 구성원이 함께 살고있는 라오스는 민족마다 맞이하는 새해가 서로 다릅니다. 몽족은 12월, 크무족은 1월, 라오족은 4월 등. 약 80% 가량의 크무족이 거주하는 우리마을에서는 1월에 열리는 크무족신년축제가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몽족축제와 같이 전통 옷도 입고 음주도 거하게 하겠지만, 그 중에서 학생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크무 전통 '춤'과 '노래'입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이번 달은 수업을 최대한 일찍 끝낸 후 저녁 8시까지 집중적으로 춤연습을 했습니다. 연습 중간중간 생일을 맞은 친구들에게 생일 축하도 해주고 작은 파티도 하며 배꼽 빠지게 웃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열심히 연습한만큼 실수 않고 공연을 잘 마칠 수 있길... 다음 달 축제가 무척 기대됩니다.

#### 4. 소감

연말이 성큼 앞으로 다가오자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연말은 한국에서 맞이하고 싶었던 걸까요. 라오스에서 4개월간 직접 살아보며 이 나라에 적응해왔고 나에겐 현지 가족, 이웃, 친구들 그리고 맡겨진 일도 있었지만 맘 한 구석이 췌 한게 뭔가 더 하기도 싫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데에도 싫증이 났습니다. 체력을 위해 꾸준히 운동하자, 생활하면서 느꼈던 민감한 부분에 대해 현지 청년들과 얘기해보자, 언어적 소통에서 오늘 불편함이 있으니 현지어를 더 공부해보자 등 도전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고, 특히 중간 평가 후엔 '남은 기간은 더 으쌰으쌰 해보자', '이것저것 실천해보자' 마음 먹었는데 마음도 몸도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또 물건이든 사람이든 오래 두고 볼 때 그 진면목을 알 수 있다는 말, 이 달은 그 말이 크게 와 닿았습니다. 물론 한결같은 친절함과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존경하고 싶은 분들이 다수였지만 친해질수록 이런 이유, 또 저런 이유를 들며 나와 가까워지려 함이 보이는 소수도 존재했고 이로 인해 상처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느낀 점,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구나. 하루 세끼 꼬박 챙겨 먹고 열심히 일 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점 말고 여기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존재하고 미리 예상치 못했던 관계에서 오는 피로함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생활에서 오는 권태감과 관계에서 오는 피로함이 갑갑하지만 그래도 정말로 귀국전까지 남은 앞으로의 한달, 뭔가 결과를 내지 않아도 되니 도전해보고 행복하게 살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첫 목표 달성) 오렌지나무 세그루^^



몽족 마을에서 12월달은 한 해를 마무리 잘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잘 맞이하여 농사/가족의 건강을 위해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전통 옷을 갖춰 입고 즐기는 달입니다. 특히, 이번 몽축제는 나먼느야 마을에서 열려 수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몽족 전통 옷을 입고, 마을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평생 마실 맥주를 축제 때 한꺼번에 다 마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힘들게 일한 만큼 이번 축제기간만이라도 즐기는 분위기였습니다. 대체로 축제기간은 일주일 가량 됩니다.





축제 기간 외에도 12월달은 마을 사람들의 결혼식이나 다른 행복을 비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특히, 결혼식이 많이 있었고, 12월에만 2번의 결혼식에 마을친구들과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오후에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과 함께 틈틈이 영어공부를 했습니다.



몽 축제를 즐기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같이 음주를 즐기고, 전통 의상을 입어보고, 전통놀이를 해보는 것. 하지만 저에게 있어 가장 의미 있게 축제를 보내는 방법은 마을 축구팀의 일원으로 같이 마을 친구들과 운동장을 뛰는 것 입니다. 이번 몽 축제배 축구대회에서는 12팀의 각 마을 팀들이 참가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참여한 첫 번째 토너먼트 경기 전 사진인데 이 날 경기는 2대1로 승리했고, 그 다음 경기에도 승리했지만 결국 우승은 못했습니다.



마냥 축제라고 놀기만 할 수는 없죠. 아침을 먹고 나면, 가족들과 함께 저번 달에 심은 땅콩 밭과 각종 야채를 심은 밭에 물을 주며 땅콩들과 야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변에 잡초를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저번달에 화전을 통해 벼 수확을 끝낸 밭에 땅콩을 심기 위해 밭을 정리하는 사진을 공유했는데 지금 보시면 땅콩들이 많이 자라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땅콩 추수는 내년 3월말~4월중순이라 하네요. 저희 집 애기도 같이 야채 밭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 1. 중간평가

이번달은 특별히 중간평가(격려ㅎㅎ)가 진행되었다. 각자의 집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가족과도 함께 이야기 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영어 때문에 우리 팀원 중에서 현지어 배우는 속도가 가장 더디었던 나였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였다. 주방에 붙어살며 어머니와 요리하였던 나는 적어도 주방용어나 그쪽 관련 어휘는 다른 팀원들 보다 월등히 잘한다는 것을 느꼈다. 발표를 준비하며 이때까지는 팀원들 서로 깊게 이야기 해보지 못했던 라오스라는 나라 안에서 살아가며 느낄 수 있는 불편한 점들을 나눠보는 시간도 있었고 발표를 함께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팀 활동을 하고 있다! 라는 느낌을 받았다. 사실 라오스 팀은 팀 활동이 너무나 부족하여 이따금씩 개인 파견인가?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각자 파트를 나누어 발표를 진행하고 현지 코디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나 우리를 위해 배려해줬으면 하는 점, 문화의 관한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었다. 그 부분들은 피드백 해주겠다고 하였지만, 이제까지의 패턴으로 보아서 아마 이대로 귀국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모두 열심히 준비하여 하는 중간발표.. 적어도 우리 팀은 만족스러웠다ㅎㅎ 그리고 내 사진실력 무엇?

## 2. 칠리농장

지난달에 우리 농장을 보며 허허벌판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며 한참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 어느 샌가 고추들이 상당히 자라있지 않는가? 나 자신도 너무나도 놀라웠다. 잡초근성이라는 말을 이곳에 와서 진정으로 깨닫는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아무리 뽑고 뽑아도 쑥쑥 자라나는 이놈의 잡초들이 미웠다. 하지만 이러한 고생 끝에 잘 자라준 고추를 보면 아빤미소가 절로 나오곤 한다. 농민들의 고초를 알 수 있는 시간들이다. "농민들 중에 몸 성한 사람 별로 본 적 없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어머니의 노력을 보면서 나도 여러모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농장 가는 길이 험난하구나 ㅎㅎ 어머니들의 고생. 저도 뒤따라 갑니다!



저번 달에 비하면 정말로 많이 자라지 않았는가? 저번 달 사진이 궁금하면 11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ㅎㅎ



드디어 첫 열매가!! 잘 자라줘서 고맙다.. 진심이야(농물)...!!!!

### 3. 컴퓨터 활용능력

#### 1) 문서작업과 영상편집

라오스라는 나라에 와서 PC 라는 것은 거의 볼 수가 없었다. 개인 컴퓨터의 보급은 물론 노트북도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아닌 이상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없었다. 특히 하계도 우리 집은 노트북이 2 대가 있는데, 하나는 PYC 에서 근무중인 현지 코디네이터 Khamming 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3 째아들 Singha 의 것이다. Singha 는 카무 축제를 위해 영상을 제작하고 싶은데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을 표현한 Singha 에게 나의 노트북을 빌려주고 영상 제작 및 편집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또한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서 과제를 내주었는데, 워드로 표를 만들고 문서작성을 하는 내용이었다. 미숙한 그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거의 내가 대신 해주는 수준까지 이른다. 컴퓨터 교육은 이 나라에 와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과목 중 하나였기 때문에(조금은 자신 있는 영어보다도!) 여건상 힘들다 힘들다 하고 포기하기 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은 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교육대상은 한 사람이지만 조금씩 알려주고 있는 편이다. 여담으로 같은 팀원 중 한명인 강재영 단원이 살고 있는 마을 나먼느아에는 Youth Center 에 컴퓨터가 여러 대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조금은(사실 많이) 부러운 감정을 느꼈다.



내 컴퓨터를 활용하여 영상 제작과 문서작업을 하고 있는 Singha 군

## 4. Youth Center

### 1) Phoudindaeng Center

한동안 저조했던 출석률을 버티고 지내다 보니 요즘에는 다시 15명씩 오기 시작하였다. 아이들이 한동안 흥미를 잃었는지 한 1~2주일간은 한 명도 오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 벨기에 단체와 나는 회의를 하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였었다. 고민은 무슨 그냥 놀아주면서 더 친해지니까 다시 돌아오더라..... 거창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함께하고 놀아주면서 공부를 하자고 하면 잘 따라오는 아이들임을 느꼈다. 역시나 라온아띠에서 교육받은 대로 뭔가 대단한 거 해주려는 느낌으로 다가서면 오히려 떠나는 것 같다. 라오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역시 관계형성이 먼저인 것 같다. 참고로 필자는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임으로 관계형성에 대한 패티쉬가 자리잡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우리 가끔은 수업 젓히고 함께 놀자 구요!!



이제는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없을 땐 없다고 걱정이더니,,, 이제는 많다고 걱정이라다 ㅎㅎ

## 2) Kavin College

이번에는 기존 수업 말고도 새로이 참여한 수업이 있기에 소개합니다. 벨기에 봉사자들이 가르치는 수업시간에 제가 보조로 들어가서 했던 수업입니다. 주제는 바로 호텔에서 일하는 현지 학생들에게 외국인들의 문화와 기본 소양 같은 것을 영어로 알려주는 수업이었다. 물론 내가 가르친 것은 아니고, 벨기에 봉사단 중 한명인 여자 봉사자가 가르쳤다. 하지만 가끔은 내가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고 롤플레이시 손님이 되어서 현지 학생들이 어떻게 손님을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시간이 상당히 유익하였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열심히 학생들을 보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며 나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또한 이번에 안 사실인데, 이 곳은 공립이 아니라 사립 학교라고 한다. 문제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운영되는 사립학교이라는 것이다.



지금 나는 레스토랑에 온 손님이 되어 주문을 받는 모습을 롤플레이 한 상황이다



사립학교인 Kavin College는 학생수가 그리 많지 않다.

## 광주 자원봉사센터

1월9일부터 23일까지 광주 자원봉사센터랑 함께 현장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다. 코디로 일하게 되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하여 진행하였는데, 실제로 기획하는 점부터 조율하는 법 등등 시작 전부터 많이 배운 것 같다. 23명이 나 되는 대학생들과 같이 하게 되는데, 아무 사건사고 없이 잘 마쳤으면 좋겠다. 이 팀과 함께 일하게 되면서 놓치는 축제나 다른 것들이 있다. 처음에는 속상하기도 하고 괜히 한다고 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지만, 놓치는 것이 있으면 그 만큼에 상응하는 즐거움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마음을 잡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내가 선택한 것에 확신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35-based World Friend Youth Volunteer Group (Raos) GwangJu Volunteer Center			
Date / local		Schedule	note
Day1 1/9 (Tue)	ICN Jin Air	·Incheon Departure 17:00 ·Vientiane arrival 20:30  Hotel : DD Hotel	In-flight Meal
Day2 1/10 (Wed)	Vientiane - Vangvieng	07:00-08:00 Breakfast <i>at DD Hotel</i> 08:00-12:30 Vientiane - Vangvieng <i>( Lunch Sandwich or Noodle)</i> 12:30-14:00 Organic farm check in 14:00-18:00 visit volunteer activity place: <i>PYC Orientation then move to Namon Noua Primary School) "Looking around PhaThong School - Village Come back to Organic Farm"</i> 18:00-19:00 supper	Hotel cooking

드디어 시작한다 2주간의 대 장정. 최선을 다해서 원활하게 끝내보고 싶다.

## PYC활동

### 1) Donation Event for PakThong School

12월1일 가난하고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한 학교를 위한 기부금 행사가 열렸다. 자전거를 타고 대상 학교를 찾아가는 행사였다. 현지 코디들과 함께한 이 행사는 꼭 입어야 하는 티셔츠가 있었다. 그 옷을 돈 주고 사야 하는데, 그 옷을 판 돈으로 학교에 기부하는 행사인 것이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해서 총 1시간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행사였지만 하루를 참으로 보람차게 시작하여서 기억에 강하게 남은 행사였다. 학교는 생각보다 작고 다니는 인원들도 적어서 놀라기도 했지만, 또한 우리가 직접적으로 기부한 것도 없지만(코디들이 다 해주셨지..... 돈도 다 내시고) 뿌듯한 느낌은 강하게 받았다.



새벽부터 추위를 무릅쓰고 달렸다.



정말로 작은 학교였다.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 2) Trip to Luangprabang

12월 중간평가 이후 우리는 현지 코디들 그리고 각자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을 초대하여 루앙프라방으로 여행을 갔다. 서로 더욱 친해지는 시간이었다. 루앙프라방은 관광지로도 유명한 곳이라서 그런지 볼거리도 많았고 멋진 풍경과 폭포 등 쉼을 누리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라 만족감이 높았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여행 중 라온야띠 팀만의 시간을 배정해 준 것도 다 우리를 위한 큰 배려였다. 현지 코디들이 다른 한편으로 얼마나 우리를 생각해 주고, 신경 써 주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자유시간도 넉넉하였고 우리는 여행을 만끽하였다.



나는 여동생 Lasoud과 함께 여행을 갔다!! 우리 손이는 14살 소녀라능!



Khamsone씨 항상 감사합니다

### 친구의 깜짝 방문

이번 달에는 특별히 나의 한국친구들이 방문하였다. 4명이라는 많은 인원들이 몰려와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기도 하였고, 같이 봉사하는 벨기에 단체가 숙박하는 게스트하우스에 가서 함께 이야기 나누며 교류를 하였다. 그 친구들에게도 참으로 신선하고 즐거운 경험이었으리라 믿는다. 어머니와 함께 12월22일에 새해 복을 논하기도 하며 쉼을 함께 누리는 시간을 가졌다.



**주저리 주저리:** 시간이 갈수록 내가 이 집의 진짜 가족이라는 생각에 게을러지는 것 같다. 한국에 있었을 때와 비슷해지는 느낌?? 왜 그런 느낌 있잖아 옛날엔 할 거 생기면 가서 바로 바로 다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더 쌓이면 하자, 좀만 있다가 하자 등? 이런 생각에 벌써 약발이 떨어진 건가 싶기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다고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가? 그건 아니다. 이 집에 살고 있는 한 명으로서 최소 이상의 가사는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출가 하셨던 아버지께서 집에 돌아오시면서 변하게 된다. 아버지가 나를 반겨주시는 모습에 크나큰 감동을 받았지만, 아버지가 집안일을 본격적으로 도맡아 하시면서 내가 해도 되는걸 조금씩 떠넘기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그런 와중에 중간평가가 있었고 중간평가가 끝난 후 현장 코디들과 함께 여행도 갔다 오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여행 중에 충분한 휴식과 평안도 누렸지만 그 후부터 무언가 공허하다는 느낌을 최근에 받기 시작했다. 라오스에 와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다. 당초 내가 성취하고 싶어했던 그 목표는 채워지고 있기는 하나 그와는 다른 곳에서 오는 공허함이 들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다. 간사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점들과 친구들의 졸업 소식, 취업 소식에 조바심이 생겨나고 있고 연말과 새해를 맞이 하면서 27살이라는 나이와 함께 중압감을 느끼는 건지도 모르겠다(27살이면 나이 얼마나 먹었다고 ㅎㅎ).

최근에 김치를 선물 받아서 요리를 하여 가족들에게 선보인 적이 있는데, 어머니만 조금씩 드실 뿐 가족들은 맛 없다고 손도 안 대더라.....아니 심지어 먹어보지도 눈으로 보지도 않고 난 어차피 안먹어~라는 느낌을 주는 가족도 있었다. 유치할 수도 있지만, 난 이제까지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하며 꾸역꾸역 먹었는데 이런 내 자신이 있고 난 후에 가족들의 반응을 보자니 좀 서운한 느낌이 강하였다.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이유는 현지 친구가 이 나라 문화가 맛없어도 맛있다 하면서 먹어주는 게 예의라고 하더라..... 또 하나는 바로 물건 소유에 관한 내용인데, 내 방에서 물건을 집어가지는 않지만 책상 위에 있는 내 물건들(물론 같은 가족 젊은 이들이) 물어보지도 통보도 하지 않고 막 가져가서 쓰는 경우가 많아 정작 필요할 때 쓰지를 못해 열 받아서 책상을 뺄 차버린 적도 있었다. 그냥 이 나라의 문화야~라고 하며 넘어가기에 본인들의 물건은 잘 챙기더라.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이면서 나의 태도는 변화하고 있다. 집에서 한국 친구들과 1시간씩 매일 통화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와서 뭐하는 거지?? 이인호 너 겨우 이거밖에 안되냐 등등 많은 감정들이 교차한다. 광주자연봉사센터랑 같이 일하면서 부딪치는 점들도 있었고 "라오스는 느릿느릿한 나라다 너무 한국식으로 생각해주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해도 술 먹는 약속 혹은 계획만 생기면 최우선으로 아주 빨리 대응하는 그런 현지인들의 모습들에 실망하곤 한다. 과연 돈 받고 일하는 것과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한 일 중 무엇을 우선시 해야 하는 걸까? 이 문제는 라온아띠랑도 연관된다. 진짜 별 것 아니지만 쌓이게 되면 커지는 문제들이다. 이런 일이 있었다. 라오스는 겨울에 생각보다 추워지기 때문에 각자 이불을 한 개씩 더 주겠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1달이 지나서야 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린 것만은 아니다. 한 8번은 달라고 요구했던 것 같다. 이런 경우가 쌓이다 보니 라온아띠에서 사전 교육 때 언급되었던 무관심에 대한 내용이 떠오르기도 하였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 남자 코디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후에 여자 코디 중 한명인 시몬의 진심 어린 사과와 관심은 또 이런 일들을 잊게 만드는 미소의 소유자이다. 사실 이불도 시몬이 갖다 주었다. 요즘 광주팀과 일하면서 광주 스태프들이 나를 너무 잘 챙겨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는다. 이럴 때는 간사하게 역시 한국인이 좋아~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이 한심하다.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다. 한국이라고 다를 바 없다. 괜히 감정이 안 좋아지니까 미화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본다. 어차피 한국 가서도 똑같이 실망하고 똑같이 갈등할 것을.

여기 나라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드는 생각은, 라오스어가 아니라 카무 언어를 배워볼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집 사람들은 카무라는 민족으로 자신들만의 언어를 갖고 있다. 즉, 공용어인 라오스 말은 학교에서 배우고 집에서는 본인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나는 라오스 말에 초점을 맞추고 배웠다. 소통에도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가끔 나 혼자 텅그러니 있고 마을 사람들 대다수가 카무말로 이야기 할 때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 입에서 나의 이름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내 흥을 보고있나? 궁금해 미치겠는데 말은 못하겠고..... 과연 가족의 언어를 저버리고 단지 공용어를 배우면 나에게 더 이득일 거라는 생각에 라오 말만 배운 나의 결정이 옳은 것이었을까? 이곳에 오기 전에 누누이 했던 그 말 "잘 살아보자"의 개념이 정말로 헛갈리기 시작했다. 이제까지 이 정도면 되지, 난 충분히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했었다. 한국 친구들이 홈스테이에 놀러 와 하룻밤 같이 잘 때도, "야 3개월 반 만에 현지어가 이리 늘 수 있냐? 강 여기서 살아라", "어머니가 너 진짜 많이 좋아하신다ㅋㅋ 그냥 라오스인 하셈!" 등등 좋은 말만 들었는데도 마음은 도리어 무거워져만 간다. 사실 고민거리들을 나열 했기에 나쁜기억들만 끄집어 냈지만, 항상 이렇게 흘러가는 것만은 아니다. 그렇기에 이상태로 1달을 보내다가 귀국할 생각은 없다. 고민은 끝없이 하되, 충분히 잘 지내고 있는 생활 패턴을 무너트리지는 말아야겠다.